

조선시대 단양지역 士族의 동향

조 준 호*

-
- I. 머리말
 - II. 단양지역 주요 사족의 분포
 - 1. 방목에 나타난 사족의 분포
 - 2. 청금록에 나타난 주요 성씨
 - III. 단양사족의 향촌활동과 서원의 건립
 - 1. 단암서원의 건립 과정과 성격
 - 2. 단양사족의 교류와 지역적 범위
 - IV. 단양지역 신분 변동과 신·구향의 갈등
 -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시대 단양지역은 고려 충숙왕 5년(1318)부터 중5품의 지군사(知郡事)가 파견된 곳으로 조선 태조 4년(1395)에 8도체제가 정비된 이후 충청도에 속하였다. 특별행정구역으로는 단양의 매포장(買浦莊), 영춘의 어상천소(於上川所)가 있었으며, 경상도 순흥이 관할하는 하곡소(下谷所)가 죽령을 넘어 단양의 동촌(東村)으로 들어와 있어 월경지(越境地)라고 불리었다고 한다.¹⁾

이후 단양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영춘·제천·청풍과 함께 내사군(內四郡), 또는 사군(四郡) 지역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두 고을은 지방군의 편제상 제천·청풍·음성·괴산·연풍과 함께 거진(巨鎭)인 충주진의 관할에 속하기도 하였다.²⁾

단양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초기 단양의 경제적 상황은 『세종실록지리지』를 참고할 때 충청도의 55개 고을 가운데 가장 영세한 편에 속한 상황이었다. 생산 기반이라고 할 경작지의 면적에서 단양은 1,169결로 기록되어 있고, 그 중 논 면적은 1할도 못되는 112결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시기 충청도 고을의 평균 경작지 면적이 4,293결이었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단양지역의 경제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별반

*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원

1) 『세종실록지리지』 권149, 지리지 충청도, 충주목, 단양, 영춘.

2)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10월 20일(경술).

나아지지 않았다. 18세기 영조 년간의 단양을 비롯한 4군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중앙의 인식은 “영남의 후미진 고을로 민업(民業)이 빈부(貧薄)하다.”라고 한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³⁾

이러한 단양지역 사족 동향을 살피기 위한 자료는 지리지와 방목류를 비롯하여 단양향교 청금록(靑衿錄), 단암서원의 원장선생안과 심원록(尋院錄) 등을 통해 사족 활동과 주도성씨의 면면을 살필 수 있다. 또한 18세기이후 신분제 변동을 배경으로 전개된 사족의 변천상은 단양향교에 소장된 신구별록(新舊別錄), 단구신향록(丹丘新鄉錄), 신구합록(新舊合錄) 등에 나타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단양지역 사족의 형성과 변천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현재까지 단양사족을 다룬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향촌 사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II. 단양지역 주요 사족의 분포

조선에 들어와 단양지역에서 활동한 성씨는 토성(土姓)과 속성(續姓)으로 살필 수 있다. 토성은 예전부터 해당 지역에 세거하면서 그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말하며, 속성은 다른 곳에서 이주하여 들어와 정착한 성씨이다. 조선시대의 성씨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⁴⁾

<표 1 세종실록지리지의 단양군 성씨조>

분류	성씨
토성(土姓)	우(禹)·장(張)·지(池)·이(李)·매포장(買浦莊) 피(皮)
속성(續姓)	이(李)·지(池)[원주민]

위의 표에서 살필 수 있듯 단양의 토성으로는 우·장·지·이씨가 있고, 매포장의 토성으로는 피씨가 있다. 이와 함께 속성으로는 원주에서 단양으로 옮겨온 이씨와 지씨가 있었다. 이러한 단양의 성씨 분포는 이후 편찬되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등에도 별다른 변화없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⁵⁾

토성은 고을에 중앙관료를 파견하기 시작하는 고려 말까지만 해도 향촌사회에서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이후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를 정비해가던 추이하에 중앙권력과

3)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9월 5일(임자), “丹陽·永春·淸風·堤川, 通稱四郡, 僻立嶺底, 民業之貧薄, 少無彼此.”

4)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단양군 성씨(본관 단양 : 張池·李·禹, 본관 원주:皮·李·池). ; 『여지도서』 및 『사찬읍지』 성씨(禹, 李, 張, 池, 皮).

연결되면서 벼슬하던 이들과 지방에 남아서 토호로서 군림하던 이들은 사족과 향리층으로 분화되어 나갔다. 단양의 토성 중에 일찍부터 중앙에 알려진 경우로는 고려 말의 우탁(禹倬)·우인열(禹仁烈)·우현보(禹玄寶)를 배출한 단양 우씨가 있었다. 또한 조선후기까지 사족으로 그 신분을 이어나간 가문은 단양 장씨에 불과하다.

이들과 함께 조선후기 단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성씨는 이후 단양에 새로 거주하게 된 이거 성씨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씨의 변천을 지리지 성씨조를 통해서만 살필 수 없는 바 아래에서는 각종 방목류와 청금록 등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방목에 나타난 사족의 분포

1592년에 시작되어 7년간이나 지속된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전역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전란으로 인해 전국의 질서는 파괴되었고 광범위한 민의 유망을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전란은 많은 것을 파괴하기도 하였지만, 그 복구의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전란 후 단양은 다른 고을과 마찬가지로 파괴된 생산 기반을 복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향촌사회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17세기를 기점으로 특정한 성씨 집단이 한 마을을 중심으로 세거하는 집성촌(集姓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토성출신이 아니었고 새로이 이주한 성씨가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향촌내 성씨의 교체현상은 조선전기 자녀군분상속제의 관행하에 단양지역 사족과의 혼인을 연고로 처향(妻鄉)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았고, 전란 때 피난왔다가 이 지역에 세거하게 된 경우 등을 살필 수 있다. 이들은 이 지역에 대대로 세거하면서 양반층으로 지위를 유지하며 재지 사족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높은 벼슬을 지낸 인물을 현조(顯祖)로 내세웠고 가문의 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과거를 통해 출사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단양 출신으로 이름난 인물로 성종 연간 활동했던 황계옥(黃啓沃)을 들 수 있다. 그는 성종 8년(1477) 문과를 거쳐 홍문관 응교 벼슬을 역임한 인물로 지리지 우거(寓居)조에 수록되어 있다.⁶⁾ 또한 인조대 병자호란이후 단양지역에 은거하며 대명여리의 현양에 앞장섰던 창해(滄海) 허격(許格)도 단양을 대표했던 인물이었다.⁷⁾

잠시 단양에 정착했던 성씨와 달리 조선후기 남한강 물줄기를 중심으로 기틀을 마련한 성씨들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성씨로 오백령(吳白齡) 계열의 동북 오씨, 조무(趙懋) 계열의 한양

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단양군 인물, 寓居 ; 『문과방목』 丁酉式年.

7) 『영조실록』 권40, 영조 11년 3월 27일(을유).

조씨, 전주 이씨 광평대군 후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선후기 단양지역의 유력 성씨로 활동하면서 많은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가문이었다.

새로 이주한 성씨들을 중심으로 단양지역 사족 사회가 재편되어 가는 모습은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가문의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

조선 전시기에 걸쳐 단양군은 40여명의 생원·진사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이웃한 제천과 청풍의 70명과 56명에 비해 크게 작은 숫자이며 그 대부분이 19세기이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조선전기이래 단양에 세거하였던 성씨로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한 가문은 19세기에 들어와 비로소 나타나는데, 충주 지씨(3명), 단양 장씨(1명), 원주(평산) 이씨(1명)로 3개 가문 5명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조선후기 이 지역에 새로이 이주한 성씨들로 파악된다.

3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가문은 4곳인데, 충주 지씨와 함께 전주 이씨(8명), 동북 오씨(5명), 창녕 성씨(3명)를 들 수 있다. 그밖에 1명씩 배출한 가문이 20개가 넘는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전주이씨 등의 몇몇 가문이 지역에서의 기반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19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단양지역의 사족적 기반이 매우 취약했음도 살필 수 있다.

<표 2 사마시 합격자 가문별 분포>

시기 \ 내용	인원	가문 분포
15세기(성종)	1	장씨[단양장씨로 추정]
16세기(중종)	1	단양우씨
18세기(영조~정조)	4	원성김씨, 전주이씨(2), 공주이씨
19세기(순조~고종)	34	전주이씨(6), 동북오씨(5), 창녕성씨(3) 충주지씨(3), 안동김씨(2) 경주이씨, 나주임씨, 능성주씨, 단양장씨 분성배씨, 야성정씨, 연안이씨, 영월엄씨 은양정씨, 용인이씨, 우계이씨, 원주이씨 청주한씨, 평산신씨, 함안조씨 (이상 1명)
총계	40	

또한 <표 2>의 합격자 분포는 토성 및 조선전기이래 세거하던 성씨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대신 새로이 이주한 성씨가 단양의 주도 사족으로 등장하였다는 향촌내의 변화상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19세기에 들어와 배출된 3인의 문과 급제자의 배출 가문이 평산신씨, 안동권씨, 성주이씨인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⁹⁾

8) 『사마방목』.

2. 청금록에 나타난 주요 성씨

방목과 함께 단양지역 사족의 분포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청금록(靑衿錄)이 남아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청금록은 청금안(靑衿案), 청금유생안(靑衿儒生案)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향교에 출입하는 사족신분인 동재유생(東齋儒生)의 명단을 수록한 것이다. 이에 비해 교생안(校生案)은 양반이 아닌 서얼, 평민 등 서재(西齋)유생의 명단을 수록한 것이다. 청금록은 일종의 사족 명부로 작성 당시 입록자 선발은 문벌자제를 천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향안의 입록 방법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학교 기구였기 때문에 천거 이후 시재(試才)를 통해 지식의 유무도 아울러 고려되었다.

이러한 청금록은 18세기 유수원(柳壽垣)의 『우서(迂書)』에 “서울과 지방(향교)에는 모두 청금록이 있어 사족의 자제들을 선발입학하게 하고 있고, 또 서재(西齋)를 설립하여 서민(庶民)의 자제를 거처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 데에서 살필 수 있듯이 널리 작성되었던 것이다.¹⁰⁾

조선시대 향교의 교생은 군현별로 액수가 정해져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대도호부·목은 각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¹¹⁾ 군현의 향교에서는 이 규정에 맞추어 교생을 입학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원내의 교생(額內校生)은 이후 사족들이 향교를 천시하여 교생에 이름을 올리지 않음으로서 유생의 명부로서 그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갔다.

이러한 양상은 인조 연간부터 양역변통론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생고강법>의 영향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조 22년에 채택된 <교생고강사목(校生考講事目)>의 내용은 향교의 액내·액외 교생을 모두 고강하고, 낙강(落講)하면 벌포(罰布) 대신에 무학(武學)에 강정하고 3년 뒤에 무학시재하여 재락(才落)하면 영원히 군보(軍保)에 속하게 하는 엄격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사족들은 액내교생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였고, 또한 고강을 모면하기 위해 청금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추이 하에 17세기중엽이후 사족들은 액내교생 대신 ‘청금유생’이라 이름하고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향교의 액내교생은 평민, 서얼 등으로 충원되어 나갔다.¹²⁾

9) 단양지역 문과 급제자 명단과 가문은 다음과 같다.

- ①철종 3년(1852) 식년시 申泰觀(본관 평산), 최종 관력 承旨.
- ②고종 2년(1865) 식년시 權仁斗(본관 안동), 최종관력 正言.
- ③고종 19년(1882) 증광시 李宅煥(본관 성주).

10) 柳壽垣, 『迂書』 권2, 論學校補選之制. 유수원은 영조 13년(1737) 단양군수를 역임하였다.

11) 『經國大典』 禮典 生徒.

12) 윤희면, 1990, 『조선후기 향교 연구』, 일조각, 8~48쪽.

향촌의 사족들은 고강을 모면하기 위해 액내교생에 들지 않았지만, 향교에 대한 관여는 계속해 나갔다. 지방의 관학으로 향교의 출입은 신분 유지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향교에 일정기간 출입하여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청금록이란 사족들만의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 향교 청금록 작성의 사례는 단양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단양의 청금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는 신해년(1851년, 철종 2)과 계축년(1853년, 철종 4년) 추록(追錄) 부분이 남아있다.¹³⁾ 자료의 구성은 청금록 수록 명단과 함께 찬자 미상의 서문(序文), 그리고 말미에 유사(有司)로 장창우, 김기호, 송정구, 신준하, 이빈언, 이인익, 신정학의 명단과 서사(書寫)한 인물로 장호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다. 청금록 수록 인물의 가문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¹⁴⁾

<표 3>에 정리한 청금록 자료는 총 8개 가문의 인물 162명을 수록하고 있다. 이전 시기에 작

<표 3 청금록 수록 가문의 분포>

분류	원주 이씨	단양 장씨	원주 (평산)신씨	진천 송씨	영월 신씨	청풍 김씨	단양 이씨	원주 송씨	총계
辛亥 (1851)	40	26	21	17	11	8	1	1	125
癸丑 (1853)	14	12	2	3	4	2			37
총계	54	38	23	20	15	10	1	1	162

성한 청금록이 현전하지 않아 시기별 분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0명이상 청금유생을 등재하고 있는 가문은 원주이씨를 필두로 6개 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원주 이씨와 단양 장씨는 사마시에 합격자를 배출한 가문이다. 단양 이씨와 원주 송씨는 1851년 1명의 입록자를 배출한데 그치고 있어, 청금록이 작성될 무렵 단양군내에서 활동이 그리 드러나지 않은 가문으로 파악된다.

청금유생을 배출한 가문으로 그 내력을 파악할 수 있었던 가문은 원주 이씨, 단양 장씨, 원주(평산) 신씨, 영월 신씨의 4개 가문이다. 이 가운데 조선전기 이래 단양에 세거하던 가문은 원주 이씨와 단양 장씨이다. 원주 이씨는 현재 그들 가문의 집성촌은 단양군 매포읍 평동(들골)과 적성면 대가리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입향조는 성종 연간 이근(李勤)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이시행, 이만춘, 이상문, 이숙, 이동립, 이후민, 이동형 등의 인물을 배출했다. 단양 장씨는 단양군 매

13) 이와 함께 단양향교에는 1906년~1951년에 작성한 청금록이 현전한다. 연도별 수록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병오년(1906)-37명, 계묘년(1903)-68명, 무오년(1918)-36명, 무자년(1948)-45명, 신묘년(1951)-40명.

14)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단양향교자료집』 1, <靑衿錄>.

포읍 안동리와 대강면 신구리, 적성면 현곡리에 걸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입향조는 러말 선조에 활동했던 인물인 장순익(張順翼)이었다.

원주(평산) 신씨는 증종대 신희철(申希哲)이 입향하여 단성면 북하리에 집성촌을 형성하였다.¹⁵⁾ 선조 때 효자로 정려를 받은 신맹경(申孟慶)을 비롯하여 신태관(申泰觀)과 신태식(申泰植) 등을 배출하였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단양에 입향한 가문으로 영월 신씨가 있다. 현재 적성면 각기리와 대가리에 걸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17세기 인조~효종 연간 활동하던 신희전(辛喜全)을 입향조로 하고 있으며, 신상리(辛象履)와 신익화(辛翊華) 등 공신을 배출하였다.¹⁶⁾

이러한 단양의 청금록이 작성되게 된 배경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162명에 이르는 단양 청금록의 수록 명단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체로 조선후기 각 지역의 청금록은 시기가 경과하면서 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작성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청금유생의 증가는 18세기이후 각 향교에서 공통되는 현상인데, 이는 당시 향안 입록자의 급격한 증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부민 및 서얼 등은 군역(軍役)을 모면하려는 방책으로 사족임을 입증해주는 향안에 입록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청금유생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청금록 작성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입록 유생 수의 증가로 인해 천거와 시재의 절차를 엄격히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백여 명이 넘는 유생의 명단을 매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¹⁷⁾ 이 때문에 단양의 청금록은 계속 작성되지 못하다가 50여년이 지난 1906년부터 다시 작성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기의 청금록 입록과 수록 인물이 신분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단양에서 청금록의 폐기를 가져온 또 다른 원인은 이전에 청금록에서 제외되었던 향족(鄉族)과 서얼들이 청금록에 오르려고 사족과 대립했던 상황도 작용하고 있었다. 정조 원년(1777) 3월 <서얼소통절목> 등이 연이어 반포되자 서얼들의 지위는 점차 개선되어 나갔다. 군현에 따라서 향족, 서얼들의 향안 및 청금록 입록이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신향(新鄉)이라 불리는 향족과 기존에 향촌사회를 주도해 오던 사족인 구향(舊鄉)의 대립이 각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중앙에서는 이를 향전(鄉戰)이라 불렀다.

장을 달리하여 후술하겠지만 단양지역의 신향세력은 19세기부터 그들만의 명부인 『단구신향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단양에서는 신향과 구향의 내부적인 갈등이 일정부분 작용하

15) 평산 신씨는 신성부원군 신찬(申贊) 때 원주 신씨로 성씨를 하사받았다. 이 때문에 단양의 평산 신씨는 『청금록』 등에 원주 신씨로 기록되어 있다. 신맹경의 손자 신효성(申孝誠)이 원두표(元斗杓)와 함께 효종을 알현하여 다시 평산 신씨로 환적하였다 (신상택 편, 1997, 『平山申氏系譜』).

16) 가문의 내력은 김의환의 <단양의 세거 성씨와 동족마을> 참조.

17) 윤희면, 위의 책.

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향촌사회에서 새로이 성장했던 세력의 등장과 도전 하에 사족의 명부로 의미를 지녔던 청금록은 더 이상 작성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단양 사족의 향촌활동과 서원의 건립

1. 단암서원의 건립 과정과 성격

단양지역에 최초로 서원이 세워진 시기는 17세기 중엽이었다. 현종 3년(1662) 우탁(禹倬)과 이황(李滉)을 병향하는 서원이 단양사족의 주도로 건립되었던 것이다. 서원 건립의 계기는 고려 말 유학자이며 주역에 밝아 ‘역동(易東)선생’이라 일컫어졌던 우탁(禹倬)의 관향(貫鄕)이 단양이라는 점과 고을에는 그가 머물던 자취와 벼슬이름을 딴 사인암(舍人巖)이 남아있어 유생들이 흠모할 만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우탁에 대한 추송의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 명종 연간 단양군수로 부임한 황준량(黃俊良)이 이러한 자취를 숭모하여 향교(鄕校)를 이전하면서 우탁(禹倬)을 제사 지내는 공간을 향교의 한편에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⁸⁾

이와함께 서원에 병향(並享)된 또 다른 인물인 이황(李滉)은 명종 3년(1548) 정월 단양군수로 부임하여 동년 10월에 풍기군수로 옮길 때까지 재직하였다. 단양은 이황이 지방관으로 부임한 첫 고을로 선정을 펼친 곳이며, 이후 많은 문인 후학들이 그의 발자취를 좇아 단양을 찾게 되었으므로 서원에 제향된 듯하다.¹⁹⁾

이러한 배경 위에 우탁과 이황을 제향하는 서원 건립은 17세기에 들어와 단양사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곧이어 사액을 위한 시도를 본격화하였다. 숙종 8년(1682) 단양 유생 신익겸(申益謙) 등이 상소하여 두 사람을 제향하는 서원에 사액을 청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사액 요청은 양인을 모시는 서원이 영남이 이미 있으므로 첩설(疊設)에 해당된다는 조정의 금령에 저촉되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²⁰⁾

이후 사액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었다. 숙종 17년(1692) 단양 유학(幼學) 신이제(申以悌) 등이 상소하여 사액을 요청하니 첩설에 저촉되기는 하지만, 단양이 우탁(禹倬)의 관향임을 들어 특별히 ‘단암(丹巖)’이라 사액을 내렸다.²¹⁾ 사액 이후 고을에서는 화속전 148결 중 7결의 수입을 서원에 지급하여 재정을 뒷받침하였다.²²⁾

18) 황준량, 『금계집』 외집, 권9, 행장(이황 찬).

19) 권상하, 『한수재집』 권2, 단암서원청액소(代院儒作, 壬戌(1682) 7월).

20) 『승정원일기』 숙종 8년 10월 23일.

21) 『서원등록』 辛未(肅宗17, 1691) 11월 초3일.

22) 『부역실총』 충청도 단양(단양군지, 112쪽, 구완회 집필)

단암서원의 사액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당대를 대표하는 노론계 산림학자들의 지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양지역의 서원 건립에 관심을 가졌던 권상하(權尙夏)는 원유들의 요청을 받고 청액상소를 대찬(代撰)해 주었고, 유생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었다. 이러한 지원으로 서원의 사액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사액과정에서 나타나듯 단암서원은 노론의 주요 인물들이 일찍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던 곳이었다. 때문에 단암서원의 원장에는 노론계의 인사를 초빙하였다. 아래에서 서원의 원장 역임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³⁾

<표 4 단암서원 원장 명단>

번호	성명	호	본관	생몰	최종관직	당색
1	宋浚吉	同春堂	恩津	1606-1672	좌참찬	노론
2	權尙夏	寒水齋	安東	1641-1721	좌의정	노론
3	李箕鎭	牧谷	德水	1687-1755	이조판서	노론
4	金元行	澗湖	安東	1702-1772	贊善	노론
5	權震應	山水軒	安東	1711-1775	諮議	노론
6	金亮行	止菴	安東	1715-1779	형조참판	노론
7	金鍾厚	本庵	청풍	?-1780	경연관	노론
8	趙靖世	忍窩	풍양	미상		노론
9	金履安	三山齋	안동	1722-1791	祭酒	노론
10	閔鍾顯		여흥	1735-1798	이조판서	노론
11	趙鎭寬	柯汀	풍양	1739-1808	이조판서	노론
12	吳載紹	石泉	해주	1729-1811	우참찬	노론
13	李采	華泉	우봉	1745-1820	호조참판	노론
14	趙鍾永	北海	풍양	1771-1829	우참찬	노론
15	李光文	小華	우봉	1778-1838	이조판서	노론
16	尹定鉉	樛溪	남원	1793-1874	병조판서	노론

<표 4>에 나타난 송준길·권상하 등 16명의 원장 명단은 모두 노론의 산림학자이자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인물들이다. 때문에 단암서원은 비록 남인의 영수로 추송받던 이황의 제향처임에도 불구하고 노론계 서원으로 정치적 성향을 표방해 나갔던 것이다.

서원 원장안에 나타나듯 단암서원의 인적 조직은 대체로 서인-노론계 서원의 경우를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서원의 조직은 원장(院長)-장의(掌議)-유사(有司)체제를 근간으로 하였을 것이다. 원장은 대표적인 산림의 학자와 고위 관료에게 위촉하여 지역민과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데 힘썼고 장의는 본읍 혹은 인근지역의 지방관을 위촉하므로 서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

23)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단양향교자료집』 1, <丹巖書院院長先生案>. 跋文은 崇禎三甲辰에 조정세(趙靖世)가 찬하였다.

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보하려 하였다. 유사는 지역 내의 유림들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구도는 서원을 통해 중앙세력이 지방의 거점을 마련하는데 용이한 구조였고, 지방 세력의 입장에서도 중앙과의 연결을 통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지사족의 향촌 내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하였다.²⁴⁾

단암서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늦게 건립 사액되었지만, 중앙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서원의 운영 방략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17세기 이래 이루어져 왔던 단양지역 사족세력의 성장을 반증해 주는 사실로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서원의 사액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경향에 걸쳐 공인받고자 했던 활동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2. 단양 사족의 교류와 지역적 범위

사액 이후 단암서원의 운영 모습을 밝혀 줄 자료는 별반 남아있지 않다. 전국 대부분의 서원이 그러하듯 흥선대원군의 전국적인 서원철폐과정에서 단암서원도 훼손의 운명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서원에서 생산된 고문서 등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암서원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문서는 앞서 언급한 『단암서원 원장선생안』과 함께 『심원록(尋院錄)』을 살필 수 있다. 『심원록』은 서원 방문자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로 시기적으로 19세기에 작성된 내용만이 남아 있다.

아래에서는 『심원록』의 분석을 통해 단암서원을 내방했던 인물들의 면면과 단양사족들의 교류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순조 30년(1830) 2월 22일 단양군수로 부임한 홍은섭(洪銀燮)부터 기록되어 있는 『심원록』의 수록년도는 순조 30년(1830)~고종 7년(1870)동안 40년에 걸친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왕래한 인물을 성씨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²⁵⁾

<표 5>에 나타난 단암서원 내방지는 총 261명으로 이를 성관별로 살펴보면 43개 성씨이다. 단양 우씨가 9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등재하고 있다. 이는 우탁(禹倬)이라는 가문의 선조를 제향한 서원에 알묘(謁廟)하기 위해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서원을 방문하였던 데 따른 것이다.

<표 5 심원록 수록인물 성관별 분포>

번호	성 씨	방문자 수
1	단양우씨	99
2	원주이씨	30
3	단양장씨	24
4	상산[진천]송씨	13
5	전주이씨	7

24) 이수환, 2001,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제4장 서원의 인적 구성과 운영.

25) <<단양향교자료집>>1, 丹巖尋院錄.

6	옥산[인동]장씨	7
7	청풍김씨	7
8	영월신씨	6
9	금성[나주]신씨	6
10	원성[평산]신씨	5
11	용인이씨	3
12	당성[남양]홍씨	3
13	연안이씨	3
14	안동권씨	2
15	월성이씨	2
16	덕수이씨	2
17	경주이씨	2
18	비안우씨, 비안[의성]김씨, 순흥안씨, 선산신씨, 반남박씨, 순창조씨, 영월류씨, 양주송씨, 양천허씨, 단양오씨, 복천[동북]오씨, 안동김씨, 김해김씨, 제주고씨, 진성이씨, 광주김씨, 청성김씨, 청송심씨, 곡산강씨, 충주손씨, 충주지씨, 평산신씨, 풍산김씨, 해평윤씨, 화산권씨, 연안김씨 (이상 1명만이 수록된 성씨)	26
19	미 상	14
	총 계	261

* []은 이칭을 가르킴.

단양 우씨의 내방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에서 19세기 단암서원 운영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18세기 이래 서원의 남설과 이에 대한 거듭된 조정의 금령(禁令)으로 인해 서원은 본래의 기능이 위축되어 갔다. 향중 사족의 취회소였던 서원은 점차 문중(門中) 인물들이 그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고, 그 기능도 제향 의례를 선행하기 위한 장소로 변화해 나갔다고 한다. 이 점은 서원 금령을 피해 확산하여가던 문중서원(門中書院)의 등장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던 사실이었다.²⁶⁾

때문에 『심원록』에 단양 우씨 인물이 압도적 비율로 나타나는 사실은 단양 인근에 세거하던 우씨 문중과 함께 각처에서 내방한 우씨들이 협력하여 단암서원의 향사(享祀) 등을 주도해 나갔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조선전기부터 단양에 기반을 두고 있던 원주 이씨(30명), 단양 장씨(24명)도 심원록에 우씨 다음으로 많은 내방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원 운영에 참여한 주요한 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심원록』 방문자의 출신지역에 대한 파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6>에서 살필 수 있듯이 『심원록』에 수록된 인물 총 261명 중 출신지역을 알 수 있는 인물은 71명으로 수록인물 전체의 분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내방자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의 순으로 지역을 파악

26) 이해준, 2008,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표 6 단암서원 방문자의 출신 지역 분포>

출신지역		심원록 수록인원	단양우씨 인물 수
경(京)	京	1	1
강원도(4)	영월	3	3
	원주	1	1
경기도(5)	여주	3	3
	수원	2	2
경상도(20)	상주	7	6
	풍기	4	2
	榮川	4	3
	안동	2	1
	대구	1	1
	문경	1	1
충청도(39)	전산	1	1
	충주	14	14
	괴산	12	12
	청풍	4	4
	정산	2	2
	제천	2	1
	연기	1	
	공주	1	
	진천	1	1
단산[단성]	1	1	
황해도(2)	금산	1	1
	개성	1	1
	평산	1	1
합계		71	63

할 수 있다. 충청도의 경우 단양의 인근인 충주·괴산지역 출신들이 많았으며, 경상도의 경우 상주(尙州)지역의 인사들이 서원을 방문하여 기록을 남겼다.

주목되는 점은 71명의 내방자들 중 63명이 단양 우씨의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세기 단암서원의 운영이 여러 지역의 우씨 후손들의 지속적인 관심 하에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갔다는 점을 반증하는 사실이라 하겠다.

IV. 단양지역 신분 변동과 신·구향의 갈등

단암서원의 건립에서 나타나듯 17세기 이래 사족 중심의 지배질서를 구축해왔던 단양지역이었지만, 신분제 변동을 배경으로 한 향촌사회 내부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 변화란 향안(鄕案)의 작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신향(新鄕)과 구향(舊鄕)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본래 향안이란 조선 전기이래 재지유력사족의 명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균현을 단위로 작성된 명부였다. 재지사족의

공론에 따라 내외친족과 처족에 신분적인 흠이 없는 이들을 수록하여 신분적 권위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임진왜란이후 재지사족들은 전란의 복구과정을 주도하면서 전래의 지배질서 회복에 힘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향안을 다시 작성하여 향촌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면 새로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는 신흥세력과 전통적 신분 질서를 고수하려는 구세력 사이에 향안 입록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즉 향전(鄉戰)이 각처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 이 점은 신분제 변동을 배경으로 향촌사회에서 새로운 세력의 등장해 갔던 추이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단양군에서는 향회의 책임자인 좌수(座首)와 같은 향임(鄉任)을 맡을 수 있는 가문을 중심으로 전대부터 향안이 작성되고 있었다. 17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양 향안에 수록된 가문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²⁷⁾

<표 7 단양 향안 수록 성씨>

성씨	단양 장씨	원주신씨 (평산)	진천 송씨	청풍 김씨	원성 이씨	충주 안씨	전주 이씨	소계
인원	11	10	7	6	5	2	2	43
성씨	영월 신씨	충주 최씨	충주 지씨	충주 송씨	진성 이씨	남양 홍씨		소계
인원	2	1	1	1	1	1		7
총 계								50

* 자료에 수록된 원주신씨는 평산신씨의 이칭임. 이하 동.

위의 향안에는 총 13개 가문 50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청금록』에 수록된 주요 가문인 단양 장씨, 원주(평산) 신씨, 진천 송씨, 청풍 김씨, 원주 이씨 등으로 17세기 이래 단양의 향촌사회를 주도하던 세력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단양의 향촌사회에 변동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18세기 후반이었다. 영조와 정조대에 걸친 일련이 서얼허통 조치 등을 계기로 신흥 세력이 점차 향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신흥록(新鄉錄)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단구신흥록(丹丘新鄉錄)』이라 전하는 이 자료에 등재된 성씨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²⁸⁾

27)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단양향교 자료집』 2, <新舊別錄>, 鄉案

28)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단양향교자료집』 3, <丹丘新鄉錄>. 자료의 구성은 丹邱鄉射堂先生案序(崇禎三乙酉, 1765)과 신흥 명단으로 되어 있다.

<표 8 단구신향록 수록 가문 분포>

성씨 수록 연도	밀양박씨	단양장씨	청풍김씨	김해김씨	영월신씨	경주이씨	순흥안씨	한양조씨	경주김씨	단양지씨	안동권씨	양주조씨	평택임씨	1명수록	미상	총계
1765		3								2					1	6
1792		1														1
1818					1											1
1821	2	1	2													5
1837	1	3						1				1				6
1840	3		3		2			2				1				11
1841	1					1		1								3
1851	1															1
1853	1												1	2		4
1861													1			1
1863	1						1						2			4
1865						1							1			2
1867	1			1	1							1	3	1		8
1871							1									1
1874			1				1									2
1875				1							1					2
1876					1	1										2
1878						1			1							2
1880							1									1
1881														1		1
1883														2		2
1884												1	1			2
1888		1		1				1		1			2			6
1890	1			1												2
1893														2		2
1894				1												1
1901														1		1
총계	12	9	6	5	5	4	4	4	2	2	2	2	2	17	4	80

<표 8>의 신향록에는 총 30개 가문 80명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신향록은 1765년에 작성되기 시작하여 1901년에 이르기까지 추록이 계속 이루어졌다. 여기에 수록된 인물들은 단양 사족들의 명부인 청금록 및 향안과 비교해 볼 때 일치되는 인물들이 없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었다. 예를 들어 신향록에 1명만을 등재한 17개 가문은 기존 단양의 향촌사회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성씨들이었다.

강릉류씨(1867), 경주박씨(1888), 경주최씨(1901)
 광산김씨(1861), 광산노씨(1863), 능주주씨(1881)
 신창표씨(1853), 예천임씨(1883), 온양방씨(1884)

원주원씨(1888), 청주한씨(1867), 평창박씨(1863)
 평창이씨(1865), 평택박씨(1867), 평택이씨(1883)
 평해황씨(1893), 홍천용씨(1893)
 (이상 1명 수록 성씨 현황, 연도는 수록연도)

신향들은 뒤이어 자신들의 이름을 향안(鄉案)에 올리려고 시도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신향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신구합록(新舊合錄)이 구향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신구별록(新舊別錄)으로 개정되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시 단양지역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을 살필 수 있다.

1781년(정조 5) 단양군수로 부임한 황은(黃蘊)은 단양향안에 신통대임명자(新通帶任名者)신향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보고 그 연유를 궁금히 여겨 하문하니, 신향 1~2인이 조령(朝令)이 내렸다고 주장하며 나이[서치(序齒)]를 기준으로 신향들을 향안에 입록하였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²⁹⁾

아마도 여기에서 조정의 명령이란 정조 원년(1777) 관직 진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한 <서얼 소통절목>의 반포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 각 지방의 서얼들은 그동안 침입이 불가능했던 향안과 청금록 등에 입록을 시도하였다. 단양에서도 역시 신향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신구합록’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향안에 침입을 시도하는 신향들의 시도에 대해 구향세력은 반발하였다. 구향들은 지역 내 사족의 명부로 권위를 지녔던 향안에 침입을 시도한 신향들의 행태에 대해 자신들의 신분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단양의 선비 장사덕(張師德)은 향중의 공의를 수합하지 않고 만들어진 ‘신구합록’이 쟁단을 일으킨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수 황은은 이러한 구향들의 상언에 대해 향중쟁단을 야기하는 합록(合錄)을 개정하여 신향안과 구향안을 다시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구향안·신향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³⁰⁾

<표 9 구향안 수록 가문 분포>

성씨 년도	단양 장씨	원주 이씨	원주(평산) 신씨	진천 송씨	청풍 김씨	영월 신씨	전주 이씨	진성 이씨	충주 송씨	총계
1784	15	17	18	16	7	4	1	1	1	80
1786	11	6	3	4	7	0	1	0	0	32
총계	26	23	21	20	14	4	2	1	1	112

29) <<단양향교자료집>>2, 新舊別錄序, 甲辰(1784, 정조 8)仲春之下澣 昌原黃蘊書.

30) <<단양향교 자료집>>2, 新舊別錄, 舊鄉案.

<표 9>의 구향안에는 9개 가문 112명의 인물이 등재되어 있다. 1784년 군수 황은이 신구향의 갈등을 조정할 때 만들어진 향안과 1786년 추록된 인물들이 입록되어 있다. 앞서 <표 7>에 제시한 단성향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일인물은 단양 장씨(1명), 영월 신씨(1명), 원주(평산) 신씨(4명), 원주 이씨(1명), 진천 송씨(1명), 청풍 김씨(1명)이다. 각각 1명씩을 등재한 충주 최씨, 충주 지씨, 남양 홍씨는 이 시기에 새롭게 입록된 가문들이다.³¹⁾

<표 10>의 신향안은 9개 가문 36명이 등재되어 있다. 신향안은 1784년 별록 작성 당시에 수록된 26명과 1799년 추록된 10명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수록인물들은 앞서 1765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단구신향록』과 비교해도 단양 장씨, 청풍 김씨 2성씨만을 제외하고 성씨별 분포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표 10 신향안의 수록 가문 분포>

년도 \ 성씨	원주 (평산) 신씨	단양 장씨	원주 이씨	청풍 김씨	은산 박씨	충주 안씨	충주 송씨	진주 이씨	충주 최씨	미상	총계
1784	8	6	4	3	1	2		1	1		26
1799	2	3	1		1		2			1	10
총계	10	9	5	3	2	2	2	1	1	1	36

1784년과 1799년 2차에 걸친 작성된 신향안의 성격은 이후 단양에서 계속 추록된 『단구신향록』과는 별도의 안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임을 살필 수 있다. 18세기 후반 즉 신구합록이 작성되고 개정되는 그 무렵에 신향 세력 내부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이처럼 단양지역에서 향안 입록을 둘러싼 신·구향의 갈등이 큰 문제로까지 확산하지 않고 종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향안의 입록을 둘러싼 향중의 쟁단이 상호간의 비방과 배척을 거쳐 송사(訟事)로까지 발전해 나갔던 다른 지역이 사례와는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때문에 군수 황은은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내부적인 조정에 따라 별록(別錄)의 작성에 찬성한 신향세력에 대해 ‘의리를 아는 자(知義理者)’라 명명하며 신구별록의 서문에 이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향촌 내의 신구향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이러한 조치는 한 때 효과를 보는 듯 했으나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신구합록’이 작성되면서 신·구향의 갈등은 시작하였다.³²⁾

<표 11>에 제시한 신구합록의 내용은 크게 3시기로 나누어져 있다. 1777년경에 최초로 작성

31)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단양향교 자료집』 2, <新舊別錄>, 新郷案.

32)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단양향교 자료집』 2, <新舊合錄>.

<표 11 신구합록 작성의 추이와 수록가문 분포>

가문 년도	원주 (평산) 신씨	원 주 이 씨	단 양 장 씨	청 풍 김 씨	진 천 송 씨	강 릉 김 씨	은 산 박 씨	충 주 안 씨	전 주 이 씨	1 명 수 록	미 상	총 계
1777년경	0	2	7	2	1	0	0	0	0	0	1	13
1785 추록	14	14	5	7	6		3	3	2	7	1	62
1834 추록	5	0	2	1	1	5	0	0	0	3	0	17
총계	19	16	14	10	8	5	3	3	2	10	2	92

된 신구합록³³⁾은 군수 황은의 중재로 인해 별록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러한 조치가 있는지 1년만 인 1785년 62명의 명단을 수록한 신구합록이 다시 작성되었다. 구향 장사덕과 군수 황은이 주도한 조치에 대한 신향들의 반발이 곧바로 표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러한 합록의 작성은 1834년 17명의 명단을 수록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신구합록의 작성에서 드러난 신향세력들의 향권에 대한 도전은 일시 중지되는 듯 하였지만, 그 억지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단양지역의 구향안 등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더 이상 작성되지 못하고 파치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양지역만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조선후기 사회 변동과 신분제 동요를 배경으로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었던 향촌사회 변동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V. 맺음말

조선전기 단양의 향촌사회는 점차 지역의 토호로서 존재하던 토성이 쇠퇴하고 새로이 이주한 성씨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다. 이거성씨들은 과거와 사환을 통해 주요 사족으로 성장하였고 사족 사회의 재편을 주도하여 갔다.

향촌에서 성장해 왔던 사족들은 17세기 중반 우탁과 이황을 병행하는 단암서원의 건립을 이루어내었다. 건립이후 서원의 사역은 당시 첩설 금령이 시행하던 상황하에서 중앙 노론계 산림학자와 관료의 지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단양의 사족들은 서원의 건립과 사역에서 보듯 중앙 세력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향촌내에

33) 1777년경에 작성된 신구합록에서 등재된 인물 13명 중 구향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장세유(張世游) 1인인데 그는 합록 개정과정에서 작성된 구향안(舊鄉案)에 등재되었다. 나머지 12인은 모두 신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던 것이다. 또한 향촌사족들의 신분적 권위는 이전시기부터 작성되었던 향안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이러한 단양지역 사족주도 향촌 지배 질서는 18세기후반 단구신향록의 작성을 전후하여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란 신분제 변동을 배경으로 향안의 작성을 둘러싼 신향과 구향의 갈등이 그것이다. 1765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신향록은 단양내의 신향세력들이 자신들의 신분적 지위 상승을 위해 결집해 나갔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신향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향안에 올리려고 시도하면서 구향과의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신향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신구합록이 구향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신구별록으로 개정되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단양지역 사족의 변천상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양지역만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신분제 동요를 배경으로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었던 향촌사회 변동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접수:2009.12.07, 심사시작:2009.12.08, 심사완료:2010.01.20]

주제어: 청금록, 향안, 사족, 서원, 향전

<ABSTRACT>

Movement of the Danyang sajok in Chosŏn Dynasty

Cho, Jun-ho

This writing is a case study about the formation and change of sajok(士族) in Chosŏn Dynasty. The data mainly analyzed Cheong-gumrok(靑衿錄) and Hyangan(鄉案) that have been a collection of the Danyang Hyangyo(丹陽鄉校).

The target of the study is the change of sajok(士族), which displayed itself in 3 steps at Danyang : the growth of newly settled sajok, the creation of Hyangan(鄉案) and the construction of sŏwŏn(書院) in the 17th century, and the emergence of hyang-chŏn(鄉戰)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study will provide examples about transformations of local communities by observing activities and changes of the influential classes at Danyang.

key word : Cheong-gumrok(靑衿錄), Hyangan(鄉案), sajok(士族), sŏwŏn(書院), hyang chŏn(鄉戰)